

尹, 북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 압도적 대응 추진”

긴급 NSC서 강력 대응 주문

“한미 핵협의그룹 속도감 있게 실행”

내년 예산안 조속 확정도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 미사일 정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김병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연발연사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

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호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부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고 우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올해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野 ‘부적격’ 의견

국힘 “전문성·균형감각 갖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판결, 미성년 자녀 동반 관공어린 발급 사례 등을 들

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후보자는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도 헌법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의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기본권 보장과 제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높은 전문성에 기반한 소신을 피력하면서도 충돌되는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 법사위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친윤 주류 ‘한동훈 비대위’ 굳히기

“여의도 정치 관습 벗어난 파격”

비주류 “주류 아직 정신 못차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주류가 18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세론을 띄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이끌 당의 간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일종의 굳히기 여론전에 착수한 셈이다.

이에 대해 비주류를 중심으로 ‘주류가 정신 못차린다’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원장 인선 분수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될 전망이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연석회의 의견을 듣고 인선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석회의를 앞두고 친윤 인사들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발송했다.

지난 주말 일부 친윤 인사들은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한 장관이 비

대위원장 적임자’라고 설득 작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이 짚는 한 장관의 강점은 여의도 정치에 얽매지 않는 ‘파격’과 대중적 인지도, 대야 투쟁력,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정관계 개선 능력이다.

장예찬 정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관습대로 비대위원장이 세워지면 이 천군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파격적인 변화를 선택해야만 전화위복이 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의회에서 비주류 초선 김용 의원이 ‘대통령 아바타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 ‘김정은 딸 김주애의 새 영도자 추대와 같다’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기본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다”고 직격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장관은 저보다 훨씬 더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인사”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36.3%...3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

리얼미터...부정평가 61.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p) 내린 36.3%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0%p 오른 61.2%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0.9%p 감소한 2.5%였다.

긍정 평가는 11월 4주 38.1% 이후 37.6%→37.4%→36.3%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4%p ↓), 서울(1.7%p ↓), 대전·세종·충청(1.3%p ↓)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4.0%p ↑)에서는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2.6%p ↓), 연령별로는 30대(8.5%p ↓)와 70대 이상(2.6%p ↓)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20대(1.8%p ↑)는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2%p ↓)은 지지율이 하락했고, 보수층(1.9%p ↑)에서는 상승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료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테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